

9/27/15

설교 제목: 열처녀의 비유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마태복음 25:1-13

- (마 25:1) 그 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마 25:2) 그 중의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마 25:3)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마 25:4)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마 25:5)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절관주** 살전 5:6
(마 25:6)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마 25:7)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절관주** 눅 12:35
(마 25:8)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마 25:9)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마 25:10) 그들이 사라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마 25:11)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마 25:12)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마 25:13)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 수난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의 분위기가 술렁거립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그 날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곳에 누가 들어 갈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그날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포함된 마태 복음 24 장과 25 장입니다.

그러기에 혹자는 마태 복음 24 장과 25 장을 가르켜 마태 복음의 종말장이라고도 합니다.

사람들은 '종말'하면 무슨 금기시 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겁을 먼저 먹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단이 아닌가? 경계합니다.

그러나 종말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분명히 앞으로 닥쳐 올 사건입니다.

예수님도 사도 요한에게 종말에 되어질 일어 보여주시면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셨습니다.

(계 1:1)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계 1:2)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계 1:3)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세상에는 오직 두가지 부류의 사람만이 존재합니다.

구원 받은 사람과 구원 받지 못한 사람!

지금은 부자와 가난한 자, 배운 자와 못 배운자, 권력과 지위를 가진 자와 그것들을 못 가진 자, 잘 생긴 자와 못 생긴 자 등등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사람이 구별되지만 그날이 오면 영원히 천국에서 살 사람과 영원히 지옥에서 살 사람 두 부류로만 사람이 구별됩니다.

영원한 복을 누릴 사람과 영원한 저주 속에 들어 갈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라지 비유에서 보듯이 알곡과 가라지 모두가 섞여 삽니다.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가 가려져 알곡만 창고에 저장된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세가지 비유 열 처녀의 비유(1-13), 달란트 비유(14-30), 양과 염소의 비유(31-46)를 주셨습니다.

각각의 비유들은 모두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은 그 중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재림하실 때 성도가 주를 맞이 하는 것을 이스라엘 결혼식에서 신랑을 맞이하는 것으로 비유하셨습니다.

먼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의 결혼 예식 풍습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일반적으로 10 대 중반 쯤에 결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식은 주로 저녁에 열렸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먼저 신랑은 장인이나 장모에게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고 결혼 약정서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서명하기를 마친 신랑은 단장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신부에게 가서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바로 이 부분이 결혼 잔치의 크라이맥스입니다.

이때에 신부 친구들로 짜여진 열명의 신부 들러리들이 신부 집에서 신랑을 기다리다가 신랑이 오면 신랑을 맞이하여 들고 신부가 신랑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그런 후 신랑이 신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는 축하 행렬에 횃불을 들고 같이 합니다.

신랑 집에 도착하게 되면 신랑 집에서는 7 일 동안 잔치를 베푸는데 이때 들러리들도 신랑 신부와 같이 들어가 잔치를 즐기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일이 예정보다 지연되었습니다.

당시 이런 일이 흔히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 신부 지참금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신랑이 신부 부모님과 지참금 문제를 협상하고 결혼 약정서에 서명을 하는 동안에 신부 집에서는 신부 들러리인 열 처녀들이 신부의 몸치장을 도우면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신랑이 오는 것이 지연되자 신부 들러리 열 처녀들이 모두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한 밤 중에 신랑이 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열 처녀들은 급히 일어나서 신랑을 맞고 신랑 집으로 가는 행렬에 참석하려고 서둘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열 처녀 중에서 다섯 처녀의 등에 기름이 떨어진 것입니다.

신랑 집으로 가는 행렬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횃불을 들어야 했습니다.

당시 횃불은 막대기에 솜(형겉이나 천)을 묶은 후에 감람유를 묻혀서 불을 붙여 사용했다고 하는데 약 15 분마다 감람유를 묻혀 주어야만 계속해서 불을 밝힐 수 있었답니다.

그러니 충분한 감람유를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오는 시간이 지연되자 기름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이들은 신랑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잠에서 깨어나서야 자신들이 준비한 기름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른 처녀들에게 얻으려 했으나 거절 당하고 하는 수 없이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다섯 처녀들이 기름을 사기 위해 나간 동안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자신의 집에 도착해 준비한 사람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기름을 사가지고 부랴부랴 뒤쫓아 온 다섯 처녀들이 신랑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신랑 신부가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신랑 집의 문도 굳게 닫혀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 달라고 사정을 해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당시 결혼 관례를 따르면 결혼식 행진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라도 결혼 잔치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상류층의 결혼식 일수록 이 규칙이 철저히 지켜졌다고 합니다.

기름을 미리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들은 결혼 행렬을 놓쳤을 뿐만 아니라 결혼식 연회에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고대했던 축제인 노래와 춤 그리고 결혼식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신부가 신랑이 준비한 혼례용 차양 밑으로 들어가는 순간도 보지 못했으며 7 일간 지속되는 연회에도 참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신부에게 누를 끼친 것은 말할 나위도 없었구요.

먼저 이 비유에 나오는 각 낱말들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하나씩 하나씩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열처녀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 성경학자들 간에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비추어 보면 열 처녀는 신부가 아니고 들러리지 않는가?

만약 신부를 말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일부 다처제를 말씀하고 계시나? 아니면 합동 결혼식을 말씀하고 계신가? 등등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논쟁을 떠나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열'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열은 유대 회당을 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이었으며 여러 종교 집회를 위해 필요한 정족의 인원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문에 나오는 '열 처녀'는 표면적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교인 모두를 상징하며 신랑은 재림하는 예수 그리스도, 혼인 잔치의 문은 천국의 문 즉 구원을 상징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구원 받은 그리스도인, 미련한 다섯 처녀는 구원을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을 상징한다고 보는 것에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 받은 성도와 구원 받지 못한 성도를 가른 기름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름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성령' '선한 행위' '구원을 얻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책임'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 등등입니다.

보편적으로 기름을 성령을 상징한 것이라고 해석하는데 그럴 경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는 구원 받기에 충만한 분량의 성령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구원 받기에 모자라는 분량의 성령을 주셨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에게 나누어 줄 것을 부탁했는데 그러면 성령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단 말인가?

구원을 받은 다섯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였는데 그렇다면 성령을 여분으로 준비할 수 있는가?

그렇다고 기름을 '선한 행위'나 혹은 '행함'이라고 주장한다고 해도 문제는 있습니다.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인데 기름을 선한 행위라고 해석하면 우리가 구원 받기 위해서 선한 행위로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이럴 경우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되느냐? 다시 말하자면 구원이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이루어지느냐?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구원은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기름은 이런 것들 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인간 측에서 미리 준비하여야만 하는 어떤 책임적인 것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즉 신랑이 더디와도 끝까지 지켜야만 하는 믿음의 분량과 같은 인간이 책임져야 할 몫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는 각각의 어휘들이 무엇을 상징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속에 내포되어 있는 message 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비록 그 날이 지체되어진다고 할지라도 항상 준비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중에서도 아주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때를 사는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1. 우리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을 위한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였고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 외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비할 줄 아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미련한 처녀들과 같이 결정적인 순간에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것을 후회해 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은 '오실 주님을 항상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인내로 믿음을 지킬 것과 주님의 재림을 '깨어 준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반가이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혹시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 아무런 기대감 없이 졸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신랑이 더디 온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우리의 생각보다 늦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지 벌써 2000 여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의 더디 오심은 우리를 위해서 였습니다.

(벤험 3:8-10)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러나 이제는 오실 날이 임박했음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2. 주님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의 차이는 등에 쓸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였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에 있습니다.

등에 기름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두 그룹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등에 있던 기름이 다 떨어지고 나면서 차이가 나타나게 되고 그 차이가 그들의 운명을 갈라 놓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칫하면 어리석은 처녀들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다같이 세상에서 교회 다니니 저와 내가 같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림의 주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모두가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 할 수 있는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어떤 이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음에도 구원 받았다는 착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니 구원을 이미 받았다는 생각에 안일한 마음을 품고 죄와 게으름에 빠져 듭니다.

점점 영적으로 무감각해집니다.

기도를 안 해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예배 드리는 것을 게을리해도 답답한 줄을 모릅니다.

오히려 정당화 하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고후 6:2)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단 주님이 오시면 구원의 문은 닫히게 됩니다.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어 집니다.

지금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신랑이 오더라도 등불을 밝힐 만반의 준비를 갖춘 자들만이 혼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듯이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주님을 맞이할 만반의 준비를 갖춘 자들만이 종말에 있을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3. 각자가 준비해야 합니다.

열 처녀의 모습은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믿는 성도들이면 누구나 재림의 주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모두가 주님이 만족할 만큼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 1:7)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을 만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설레임과 떨림으로 믿음 생활을 하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성경에 쓰여 있으니 오기는 오시는가 본데 나는 별로 마음에 와 닿지 않아 하며 그저 덤덤하게 사십니까?

세상 일로도 너무 분주한데 그런데까지 신경을 써야 하나? 그때 가서 어떻게 되겠지 생각하십니까?

아내가 잘 준비하니 나는 아내의 치마 자락만 붙들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는 각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왕 기다릴 바에야 제대로 준비하고 기다립시다.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럽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받아 주실까 걱정된다고요?

우리 모두는 죄인들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자신의 행위로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 보혈로 덮이면 그 사람은 점도 흠도 없는 준비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천국 혼인 잔치에서 다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